

2014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고사
정답안 및 풀이과정
(인문 계열)

〈문제 1〉‘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공감’(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공감 개념의 정의에 따르면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주체가 되어 유태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그의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지니지 못했다. 반면 나의 시적 화자의 경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는 그가 주체가 되어 포스터 속의 비둘기의 날고 싶은 답답한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시적 화자가 ‘나는 아는데’ 등의 어구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과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아킬레우스가 공감에 관하여 보이는 이중적 태도이다. 공감 개념의 정의에 따르면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 친구 파트로클로스,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뤼카온이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창을 놓고 겹겹히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뤼카온이 아킬레우스에 의해 공감을 받은 것일 뿐, 아킬레우스가 주체가 되어 뤼카온의 살려달라는 호소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다. 즉 공감의 주체는 뤼카온이지 아킬레우스가 아니다. 오히려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뤼카온을 살해함으로써 공감 개념을 살인의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는 뤼카온에게 공감을 한 것이 아니며,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킬레우스의 태도를 가의 아이히만의 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상대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은 서로 일치하지만 아킬레우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공감 개념을 통해 오히려 살인을 정당화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히만은 공감을 할 줄 모르는 기계적 인간으로써 유태인을 살해한 것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공감을 할 줄 아는 주체적 인간으로써 뤼카온을 살해한 것이다.(967자)

풀이 과정

간단한 3자비교의 변형문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9학년도 제시문 (다)처럼 (다)에서 주체(S)가 두 명이 등장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 문제와 완전히 똑 같은 유형으로는 2012학년도 인문계열 1번이 있습니다. 삼자비교를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연세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 | S | 부사+V | O(공감의 대상) |
|-------|-------|-------------------------------------------------|-----------|
| (가) | 아이히만 | (명령받은 그대로) 학살 | 유대인 |
| (나) | 시적 화자 | 나는 아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데 | 비둘기 |
| (다)-1 | 아킬레우스 | (다른 사람의 죽음 및 자신의 죽음의 운명을 설득수단으로 삼아) 살해 | 뤼카온 |
| (다)-2 | 뤼카온 | (아킬레우스의 설득에 의해)창을 내려놓음 | 아킬레우스 |

- 제1비교기준 : 공감의 여부 (가다/나)
- 제2비교기준 : 공감의 개념의 인식 여부 (가/다)

2번 문제 발문에 등장하는 제시문 : 가,다,라. 따라서 (나)가 왕따(배)제시문.

〈문제 2〉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가의 아이히만은 자신에 의해 학살당할 유대인의 마음을 상상하지 못하였고, 그가 주체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다. 즉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다의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뤼카온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폭력을 사용하여 뤼카온을 죽인다.

라의 워딩턴은 어머니를 살해한 강도를 용서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주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반면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죽음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상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뤼카온을 죽인다.

즉, 똑같이 상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폭력을 휘두르는 반면, 워딩턴은 강도를 용서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살고 싶은 마음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은 워딩턴의 경우처럼 폭력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감은 주체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주체성 없이 그저 명령받은 대로 유대인을 살해한 아이히만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또한 공감은 상상력을 그 바탕으로 한다. 뤼카온이 비록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나, 뤼카온이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아킬레우스가 죽음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자신도 죽을 것이라 설득하였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타인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상이며, 이를 통해 주체적으로 폭력을 멀리하려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심지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갖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960자)

풀이 과정

매우 쉬운 대응 문제입니다.

| | 상상 | 주체 | 폭력 |
|-------|----|----|----|
| 아이히만 | X | X | ○ |
| 아킬레우스 | ○ | ○ | ○ |
| 워딩턴 | ○ | ○ | X |